

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오늘은 2강 맞춤형 인재가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장을 다니시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내가 다른 분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지점을 분명히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당시 손자가 어떻게 오나라 왕 합려한테 스카웃돼서 그 손자가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손자의 나이가 불과 지금 현재 기록에 의하면 23살밖에

안 됐고 합려는 그 당시 왕이었던 말이죠. 더군다나 손자는 제나라 사람이고 제나라에서 오나라까지 가서 결국은 왕을

만났고 그 왕을 만나게 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손자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장군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합려가 결국은 손자를 만나죠. 만났는데 그 당시에 손자가

합려에게 바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번 강의의 주제인 손자병법입니다. 그 손자병법을 바쳤는데

그 손자병법을 합려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손자병법을 다 읽어봤소. 그런데 당신이

부녀자들을 데리고 한번 훈련을 해볼 수 있겠소? 라고 하니까 손자가 예,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부녀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합려가 자기가 궁궐에서 오나라

궁궐에 있던 궁녀 180명을 주죠. 주면서 그중에서 합려가 가장 아끼는 애첩 2명을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 2명을 한쪽은 1명을 왼쪽 대장으로 삼고 또 1명을 오른쪽 대장으로 삼아서 두 부대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죠.

앞으로 하면 가슴을 바라보고 옆으로 하면 왼쪽 팔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팔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뒤를 바라보라고 하면 등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 2명의 희첩들이, 그 애첩들이 나머지

궁녀들에게 눈짓을 하니까 이 궁녀들이 말을 안 듣고 킁킁대고 웃는 거죠. 그랬더니 손자가 어떤 행동을 하나면

군주께서 나에게 명을 내려서 내가 이들을 지휘하는데 장수의 명령이 하달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즉,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궁녀들 즉, 그 사졸들의 죄다라고 하면서 그 2명 특히 앞에서 눈짓을 하면서 분위기를 돋운

그 2명을 처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끼를 들고 옛날에는 이제 죽이는 도구가 도끼였었는데 도끼를 들고

죽이는 시늉을 하니까 합려가 멀리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다가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두 희첩이 없으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도 맛이 없소. 그러니 그자들을 봐서 내 얼굴을 봐서 한번 살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합려의 그 사자의 말을 들은 손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비록 군주의 명령이라도 장수는 병영에 있을 때

군주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2명의 희첩을 가차 없이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첩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총애를 받는 희첩 2명을 좌우 대장으로 삼으니까 그때부터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 사졸들이 병졸들이 잘 훈련이 돼 있으니

대왕께서 만약에 시험해보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합려가 그 단상을

내려오면서 나는 이제 그대의 지휘 능력을 알았으니 그대를 장군으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군으로 임명을 하죠.

과연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줄까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의 기백과 패기를 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명분이 있고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손자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이것은 합려랑

손자의 단순한 만남 같지만 합려가 손자에 대해서 많이 안 알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자는 합려를 만나기 전에

합려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합려가 왕이 되면서 항상 초나라를 공략할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특히 합려는 왼쪽 초나라, 강국 초나라가 있었고 그 강국 초나라를 이길 수 있는 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오자서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자서랑 힘을 합칠 수 있는 또 1명의 젊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손자는 충분히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아는 손자가 오왕 합려의 초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 그다음에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나라가 가장 또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죠? 바로 월나라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월동주라는 말 아시죠? 오월동주, 오나라랑 월나라랑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다가

두 나라가 양속지간이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이 오면 다시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서 가고 또다시

풍랑이 잦아들면 그 두 나라 사람들이 싸운다는 이야기.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을 오월동주 지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오왕 합려는 월나라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천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나라를 이겨야 되는데 그 상황을 손자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오왕 합려의 속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속내를 알고 있는 손자가 정말로 표적화해서 타겟팅해서 합려를 만났고 결국은 또 합려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또 손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공략해서 결국은 면접에 통과해서 정말

23살이라는 청년의 나이로 장군이 됐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손자처럼 자신의 소신대로 하나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손자가 합려를 만나서

결국은 발탁되고 그다음 합려는 그런 손자의 패기와 능력을 존중해서 그를 발탁을 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당시 오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손자와 합려의 만남으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맞춤형 인재가 되어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거나 또는 다른 직장의 스카웃 등의 제의를 받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내가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요. 상대가 나를 확실하게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밀하게 상대 회사 또는

주변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내 스스로를 그 조직에 맞게 그 회사에 맞게 노력해서 그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하건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스카웃되든

그 사람이 나를 분명하게 알아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